



교사와 의사 등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무등실내악단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갖는 연습 시간은 생활의 활력소이자 윤택유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내 삶의 낭만 클래식을 만나다

의사·교사 아마추어들의 '무등산 실내악단'

광주 상무 우리병원 지하실에서는 매주 금요일이면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아마추어 클래식 연주자들의 모임인 무등산내악단 단원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이다.

18명의 단원들 매주 한차례 아름다운 화음 만들기 열정 가족 음악회·문화 나눔 등 다양한 활동 통해 행복 만끽

지난 6일 단원들은 스트라우스의 '천둥과 번개'를 연습중이었다. 처음 악보를 받은 날이라 연주가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열기가 뜨거웠다. 무등산내악단은 20~50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단원은 주로 교사와 의사들. 딱히 직업에 제한을 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인들에게 1주일에 정해진 하루를 빼는 게 만만치 않은 터라 개인 시간이 자유로운 교사와 개업의들이 주축이 됐다. 단원은 이동훈(이비인후과), 오준호(건축 설계사), 김지영(장성 삼계중), 김정은(바이올린 강사), 조수향(순천 가톨릭병원 약사), 안혜정(보성 북대중), 김홍(전대 수련의), 문선애(광산중 교사), 현예영(산부인과 의사), 임성수(소아과), 정소윤(설월여고), 이상열(치과) 등 모두 18명. 악장을 맡고 있는 박병조(치과의사)씨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진 실력과, 첼로를 맡고 있는 김형원(내과의사)씨 등도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인탁(재활의학과)씨는 편곡에 일가견이 있다. 다소 빠듯한 스케줄이지만 단원들의 출석률은 꽤 높은 편이다.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게 삶의 활력소이자, 윤택유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마추어들이 실내악 연주를 꾸준히 진행한다는 건 어렵다. 일단 악기를 배우는 게 만만치 않은데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 연주할 '템버'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클래식을 사랑하는 단원들에게 무등산내악단은 꼭 맞는 모임인 셈이다. 지난해부터 지휘까지 맡고 있는 윤재운(서광고 기술교사·비올라)씨는 "프로 연주자들은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 즐기면서 연주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연주하는 것도 행복하고, 만남 자체가 즐겁다"며 "실력으

로 따지면 초등학교부터 박사급까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크기는 하지만 하나의 곡을 완성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등산내악단은 일년에 한 차례씩 '가족 음악회'를 연다. 예전에는 공연장을 빌려 큰 규모의 공연을 열기도 했지만 최근엔 소박하게 연주회를 꾸미고 있다. 편안하게 즐기며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다. 가족음악회 때는 예원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우고 있는 김광수(치과의사)씨의 두 딸도 무대에 서곤 한다. 20~30대 젊은 회원들은 '마이너'라는 소모임을 꾸렸다. 비슷한 연배의 단원들끼리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문화 나눔' 등 다양한 활동도 하기 위해서다. '마이너'는 지난해 '수상한 교육문화공동체-걸'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한 '노래하는 아이들' 프로그램에 동참, 아이들과 '사운드 오브 뮤직' 무대를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녹음된 음악이 아닌, 바이올린과 첼로 등으로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에 맞춰 공연을 하는 데 대해 자랑스러웠고, 단원들도 뿌듯함을 느꼈다. 40~50대 펌버인 박병조, 김광수·윤재운·김형원씨는 일명 '서방 4중주단'을 꾸리고 수시로 모여 연주를 하고 있다. 더블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윤아(설월여고교사)씨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연습을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며 "직장생활의 돌파구가 되고, 마음의 휴식도 된다"고 말했다. http://cafe.daum.net/chamberorch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책을 펼쳐라, 꿈을 펼쳐라!

아이숲·무등도서관 신학기 맞아 학생·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광주지역 도서관들이 신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숲어린이도서관(관장 정봉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 동아리 2기생을 모집한다. "책을 펼쳐라, 꿈을 펼쳐라"라는 슬로건이 이 동아리는 좋은 책을 읽고 독서토론과 자원활동을 펼치는 청소년 독서동아리이다. 매달 두번째 네번째 주 모임을 열며

28일 예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또 '2009년 도서관 엄마학교 강좌를 개설했다. 3월 11일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강좌가 진행되며 '비밀 시험지'작가 안정옥씨 초청 강연, 어린이 문학 강연이 진행된다. 신청서 40명을 모집하고 참가비는 2만원. 문의 062-652-1279. 광주시립도서관은 내달부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

년을 대상으로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등도서관 어린이실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사)어린이독서연구회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샌지와 빵집 주인, '오피스 해임' 등 우수 동화를 읽어준다. 또 어린이용 DVD 및 빗그림도 상영한다. 문의 062-613-535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칙·칙·폭·폭~

토마스와 떠나는 신나는 세상

내달 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토마스와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까.' EBS와 함께하는 '토마스와 친구들의 신나는 놀이 세상'이 3월 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열린다.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인 '토마스와 친구들'은 전 세계 135개국에서 방영중인 인기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편을 확보하

고 있다. 전시는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장난꾸러기 토마스 기차에 직접 탑승할 수 있으며 2~3세 유아들을 위한 토마스 꼬마기차도 운행한다. 또 그림과 거울을 이용해 나만의 움직이는 기차를 만들어보는 '멋쟁이 제인스', 울퉁불퉁 석탄을 직접 화물기차에 옮기는 '부지런한 퍼시', 푹푹푹 기차 부속품을 조립해 보는 '멋진한 에드워드' 등의 코너가 운영된다.

그밖에 나만의 토마스 기차 만들기, 장난감과 레일로 나만의 기차길 만들기, 알송달송 퍼즐 세상 등 다양한 코너를 만날 수 있다. 토마스와 친구들의 DVD 에피소드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도 마련돼 있다. 티켓 가격 소인 1만 2천원, 성인 1만 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보급 '서수형 토기' 국내 첫 발굴 해남 '만의총고분군' 사적 가치 지정 추진

전남도는 '해남 성산 만의총고분군'에 대해 중요문화재(사적) 가치 지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남 성산 만의총고분군' 1호분에서 최근 발견된 토우(土偶)가 장식된 서수(瑞獸)형 토기는 우리나라 첫 발굴 유물로서 국보급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보 23일자 7면 보도) 중요문화재(사적) 지정은 문화재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때 6개월간 문화재청장이 취임하는 일종의 긴급 보호조치이다. 지정 기간에는 지정문화재와 똑같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 받는다. /오광록기자 kroh@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구석기 시대의 개관과 남도의 구석기문화'를 주제로 조선대학교 교박물관 이기길(사학과 교수·사진) 관장을 초청해 토요특별강좌를 연다. 박물관의 교육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 이 관장은 구석기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등에 대해 강의를 한다. 이 관장은 지난 2002년 장흥 신복유적에서 마름질석기, 간석기와 숫돌 유물을 발굴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마름질석기 등은 일본 마가야현 칸노키의 후기 구석기 유적에서만 발견됐 유물이다. 문의 062-570-70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BPW 광주·무등클럽 내일 라마다호텔서 토크의식

전문직여성한국연맹 BPW (Business & Professional Women) 광주·무등클럽이(회장단 문미숙, 송기희) 2009 토크의식을 26일 오후 6시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갖는다. 내년 연맹 창설 40주년을 앞

두고 열리는 이날 토크의식에서는 또 이영호(부경대 교수·전 국회의원)씨가 '바다와 경제 그리고 문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여성문화CEO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광주시 사업공모에서 금상을 받았던 광주·무등클럽은 올해도 '여성의 눈, 세상 바로보기' 사업을 통해 지역여성인재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메가박스 구.린던역사거리 ☎에이1544-0600 1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12세) 최고등급 2관 작전 (18세) 3관 적벽대전2 (15세)/말리와 나 (12세) 4관 문프린세스-문에이커의비밀(전세) 5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6관 마린보이 (15세)/작전 (18세) 7관 핸드폰 (18세)/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8관 위남소리 (전세) 9관 핸드폰 (18세)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엔터 시네마 총정리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2관 체인질링 (청소년관람불가) 3관 마린보이 (15세) 4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5관 알파돔/생화점 (청소년관람불가) 6관 데스페로 (전세) 7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 www.entercinema.co.kr *널고 편안 특우주 주저장 300대 *금.토 살아생전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의역관문편) 1관 말리와 나 (12세) 2관 과속스캔들(12세)/작전명 발키리(12세)/유감스러운도시(15세) 3관 핸드폰 (18세) 4관 핸드폰 (18세) 5관 데스페로(다비/전세)/적벽대전2(15세) 6관 문프린세스-문에이커의비밀(전세) 7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12세)/작전(18세) 8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15세)/마린보이(15세) 9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12세) 10관 작전 (18세) *초남 최대 주차장 *배달서비스 상영합니다 1588-7941 *관람료 별도 *입장권 별도 *4월~8월~9월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문프린세스-문에이커의비밀(전세) 2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15세)/마린보이(15세) 3관 핸드폰 (18세) 4관 위남소리 (전세) 5관 말리와 나 (12세) 6관 작전 (18세) 7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12세)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북 시무(오전8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하미 시네마	제일 시네마		
하미 시네마 진다후문 하이포텍스 ☎ 267-7777 1관 말리와 나 (12세) 2관 핸드폰 (18세) 3관 잉크하트(전세)/세븐파운즈(15세) 4관 유감스러운도시(15세) 5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6관 핸드폰 (18세) 7관 과속스캔들 (12세) 8관 작전명 발키리(12세)/마린보이 (15세) 9관 적벽대전 (15세) 10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10관 작전 (18세)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385 매일 심야 *이동통신사 & OK 카쉬카드 할인 혜택 *하미 수령점 288-5757 *하미 북령점 262-0825 *하미 골프점 251-5060 *하미 남구점	제일 시네마 총정리 3가 ♥ARS 전화예매 227-1800 ♥ 1관 벤지민버튼의시간은거꾸로간다 (12세) 2관 핸드폰 (18세) 3관 작전 (18세) 4관 말리와 나 (12세) 5관 마린보이 (15세) 6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15세)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227-1960		